

[8~13] - 2017.11 [21~26]

이번에도 바로 (가)부터 읽어봅시다! 물론 <보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다른 작품이니 (나)와 (다)를 독해하는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가)

전쟁을 다룬 소설 중에는 실재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허구를 매개로 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외적에 돌린 무능한 관군 탓에 병자호란 당시 여성은 전쟁의 큰 피해자였다. 「박씨전」에서는 이 비극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전화를 피하기 위한 장소인 피화당(避禍堂)에서 여성 인물과 적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이들 간의 대립 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한편,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을 직시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가, 이념 간의 갈등에 노출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화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전장을 재현하여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무고한 희생을 목도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첫 문단에서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룬 소설들이 있다고 하며 (나)와 (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네요. (나)인 ‘박씨전’과 (다)인 ‘시장과 전장’에 대한 설명을 읽어주며 넘어가면 되겠어요. 둘 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이네요.

우리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 전쟁의 성격을 탐색할 수 있다. 두 작품에서는 외적의 침략이나 이념 갈등과 같은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전쟁이 폭력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쟁의 명분은 폭력을 정당화하기에, 적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으로, 우리 편의 죽음은 불의한 적에 의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전쟁은 냉혹하게도 아군이나 적군 모두가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거나 자신의 명분에 따라 이를 이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을 띠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군사들이 대치하는 전선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전쟁터란 전장과 후방,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다.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 받으면서도 생의 의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비극성을 띤다. 이처럼,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전쟁을 다룬 소설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전쟁의 성격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이의 갈등’이고, ‘민간인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폭력성’, ‘전쟁터라는 혼돈의 현장’, ‘전쟁의 비극성’ 등을 말이죠. 그럼 (나)와 (다)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확인하며 읽어봅시다.

(나)

문득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와 크게 꾸짖어 왈, “무지한 용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늘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용골대가 대로하여 꾸짖어 왈, “너는 어떠한 계집이완데 장부의 마음을 돋우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 우리나라의 신첩(臣妾)이라. 잔말 말고 바빠 내 칼을 받아라.”

계화가 들은 체 아니하고 크게 꾸짖어 왈, “네 동생이 내 칼에 죽었으니, 네 또한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소롭지 아니리오.” 용골대가 더욱 분기등등하여 군중에 호령하여, “일시에 활을 당겨 쏘라.” 하니, 살이 무수하되 감히 한 개도 범치 못하는지라.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오. 마음에 탄복하고 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 왈,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라. 내 영을 어찌 어기리오.” 자점이 황공하여 왈, “분부대로 거행 하오리다.”

용골대가 호령하여 왈, “네 군사를 몰아 박 부인과 계화를 사로잡아 들이라.” 하니, 자점이 황겁하여 방포일성에 군사를 몰아 피화당을 에워싸니, 문득 팔문이 변하여 백여길 함정이 되는지라. 용골대가 이를 보고 졸연히 진을 깨지 못할 줄 알고 한 꾀를 생각하여, 군사로 하여금 피화당 사방 십 리를 깊이 파고 화약 염초를 많이 붓고, 군사로 하여금 각각 불을 지르고, “너희 우리가 아무리 천변만화지술이 있은들 어찌하리오.”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놓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하매 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여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나무들 사이에서 계화라는 여인이 나와 용골대와 한판 뜨고 있습니다. 계화라는 여인은 용골대의 아우를 죽였을 정도로 싸움을 잘하나봐요. 용골대는 뻑쳐서 이것저것 해보지만 통하지 않고, 조선의 대원수인 김자점에게 조선 사람 계화를 죽여라고 명령합니다.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오.’라는 서술자의 개입은 체크하셨죠? 아무튼 계화와 박 부인이 있는 피화당을 에워싸고 그곳에 불을 지르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전쟁의 잔혹함이 드러나는 장면이네요.

박씨가 주령을 드리우고 부채를 쥐어 불을 부치니, 불길이 오랑캐 진을 덮쳐 오랑캐 장졸이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여 다 도망하는지라.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 제,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박씨가 시비 계화로 하여금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 놓이 무식하여 은혜 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오랑캐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掌中)에 매였으니 그런 말은 생심(生心)도 말라.” 하며, 흑 옥을 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계화로 하여금 다시 외쳐 왈, “너희가 일양 그리하려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게 오며, 음풍이 일어나며 백설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 군마의 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지라.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

이 황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지라. 마지못하여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버려, 피화당 앞에 나아가 꿇어 애걸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나 왕대비는 아니 되서 갈 것이니, 박 부인 덕택에 살려 주옵소서.”

박씨가 주렴 안에서 꾸짖어 왈, “너희들을 모두 죽일 것이로되, 천시(天時)를 생각하고 용서하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 이번에는 아는 일이 있어 살려 보내나니, 조심하여 들어가며, 우리 세자 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셔 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오랑캐를 씨도 없이 멸하리라.”

이에 오랑캐 장수들이 백배 사례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하지만 그 상황에서 박씨의 하드캐리로 오랑캐를 쫓아내는 내용이네요. 실제와는 다르게 오랑캐를 쫓아낸 것으로 묘사하여 조선 사람들을 위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

“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까요?”

윤씨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김씨 댁 아주머니의 얼굴도 잠시 흐려진다. 그러나 이내 쾌활한 목소리로,

“쌀 배급을 주는데 야단을 치려구요? 세상에 불쌍한 백성을 더 이상 어찌겠어요?”

“그래도 댁은…… 우리 애아범이 그래 놔서…… 전에도 배급을 못 타 먹었는데.”

“이 마당에서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지간히 시달려 놔서 이젠 그렇게들 안 할 거예요.”

독길을 건너서 인도교 가까이 갔을 때 노량진 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 어느 구석에 끼어 있었던지 웅케 죽지도 않고, 스무 명 가량의 사람들이 떼 지어 간다. 김씨 댁 아주머니는,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미친 듯 뛰어갈 뿐이다.

“여보,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뛰어간다. 윤씨와 김씨 댁 아주머니도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따라 뛰어간다. 그들이 간 곳은 한강 모래밭이었다. 강의 얼음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여남은 명가량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사실은 배급이 아니었다. 밤사이에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미처 날라 가지 못했던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갈가마귀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쌀과 수수가 강변에 흩어진다. 사람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짊어지고 일어섰다. 쌀자루를 짊어지고 강변을 따라 급히 도망쳐 가는 사나이들, 쌀자루에 쌀을 옮겨 넣는 아낙들, 필사적이다. 그야말로 전쟁이다. 김씨 댁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루 끝을 여민 뒤 머리에 이고 일어섰다.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듯 고탈 소리, 총성과 함께 윤씨가 폭 쓰러진다. 윤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쌀자루 위에 얼굴을 처박는다. 거무죽죽한 피가 모래밭에 스며든다.

윤씨는 걱정이 많아 보여요. 김씨 덕 아주머니와 쌀 배급을 받으러 가나 봅니다. 그렇게 ‘인도교’ 근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노량진 쪽’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오고 있네요. 물어봐도 대답도 없는 사람들 사이로 달려가 보니 ‘한강 모래밭’ 이랍니다. 거기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두고 간 식량이 남아 있었네요. 그걸 미친듯이 줌고 있는데, 갑자기 윤씨가 총을 맞고 쌀자루 위에 쓰러집니다. 정말 너무 잔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김씨 부인이,
 “애기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은 그냥 쫓아간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간다. **독길**을 넘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회색빛 속에 싸여 있었다. 지영은 윤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루를 꼭 껴안고 있다. 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지영은 윤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춰 업는다. 그는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긴다.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른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독길까지 나왔다. 독길에서 저 멀리 과천으로 뻗은 길을 바라본다. 길은 외줄기…… 멀리멀리 뻗어 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 박경리, 「시장과 전장」-

(중략) 이후의 상황입니다. 김씨 부인이 아까 나온 그 ‘김씨 덕 아주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영이라는 새로운 인물도 등장했으니 체크해줍니다. 지영은 독길을 넘어가 아무도 없는 강변을 바라보고, 총에 맞은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알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무시무시한 전쟁통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네요.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8. (가)의 ‘전쟁의 허구화’를 바탕으로 (나), (다)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② (나)는 박씨 등의 여성 인물과 용골대 등의 가해 세력 간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③ (다)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그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
 - ④ (다)는 윤씨와 지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용골대’나 ‘중공군’과 같은 단어를 통해 실재했던 전쟁이 환기되도록 했다.

1번 선지부터 평가해 봅시다. (나)는 병자호란이라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고 있지만, 오랑캐를 무찔렀다는 허구화가 이루어졌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2번 선지는요? 박씨, 계화 같은 여성 인물 나왔고, 그들과 대립하는 용골대, 김자점 등의 세력이 나타났으니 허용할 수 있겠어요. 3번 선지. 한국전쟁이라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고 있고, 버려진 쌀을 주으러 갔다가 총에 맞는 죽는 주인공을 보여주는 등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도 보이니 애도 허용이 가능하겠어요.

4번 선지는 어떤가요? 윤씨나 지영이가 가해자인가요? 둘 다 전쟁의 피해자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럼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는 도저히 허용이 힘들고, 답은 쉽게 4번이네요. 5번 선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없겠죠?

9.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p><학습 활동></p> <p>◦ 병자호란에 대한 백성들의 욕망을 담은 「박씨전」과 다음의 「임장군전」을 읽고 전쟁 체험이 소설에 반영된 양상을 살펴봅시다.</p>
<p>상께서 왈, “길이 막혀 인적이 통하지 못하니 <u>경업</u>이 어찌 알리오. 목전의 형세가 여차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항복할 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u>경들은 다시 말 말라.</u>” 하시고, <u>양천통곡하시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u> 병자년 12월 20일에 상이 항서를 닦아 보내시니,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p> <p><u>용골대가 송파장에 걸진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교만이 자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거드럭거리며, 왕 대비와 충공을 돌려보내고 세자 대군을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u></p> <p style="text-align: right;">- 작자 미상, 「임장군전」-</p>

- ① (나)에서 용골대를 꾸짖는 계화와 박씨가 등장하는 것에는 병자호란 때에 있었으면 좋았을 인물에 대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되었겠군.
- ② 「임장군전」에서 항서를 보낸 것에 대해 서술자도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연대감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나)와 「임장군전」에서 모두 용골대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데에는 백성들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되었겠군.
- ④ (나)에서는 박씨의 용서를 통해, 「임장군전」에서는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을 통해,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이 반영되었겠군.
- ⑤ 「임장군전」과 달리 (나)에서 박씨의 승전을 통해 왕대비가 볼모로 가지 않게 된 과정이 형상화된 것은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망이 반영된 결과이겠군.

일단 <보기>의 ‘임장군전’을 포인트 위주로 스무스하게 읽어주고, 1번 선지부터 평가해 봅시다. ‘임장군전’에서는 계화나 박씨 같은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왕이 항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에서는 계화나 박씨 같은 인물이 등장하여 오랑캐를 혼쫌내주고 있죠. 오랑캐를 혼쫌내는 것은 백성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2번 선지. ‘양천통곡하시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더라.’ 라는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허용할 수 있겠네요. 3번 선지 역시 (나)와 ‘임장군전’에서 모두 용골대가 나쁜놈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 허용할 수 있겠고요.

4번 선지 봅시다. 박씨의 용서가 추모 의식인지 아닌지는 애매하지만, 용골대가 조선을 먹고 기뻐하며 승전비를 울리고 있는데 그걸 ‘추모 의식’으로 보면 좀 싸이코패스죠.. 지문을 똑바로 읽었다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네요. 5번 선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구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문학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허용가능성 평가’입니다. 저 ‘허용’의 기준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가다듬어 주세요.

10.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총천하고 장안 미색이 끌려가는 장면은 조선 백성들의 비극적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용골대에게 조선 도원수가 복종하여 명령을 따르는 장면은 관군의 무능함을 허구를 매개로 조명하고 있다.
- ③ 박씨의 재주에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해 하는 장면에서, 패전의 고통이 허구적 인물의 활약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
- ④ 오랑캐군의 침략이 은혜지국에 대한 침범이라는 박씨의 비난은 용골대를 비롯한 오랑캐군이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용골대가 장졸들의 죽음에 탄식하는 장면에서, 죽음의 책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씨에게 돌리려는 오랑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1번 선지~4번 선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는 쉽게 허용이 가능하죠? 설명을 하자니 그냥 선지 그대로가 해설 그 자체라 조금 곤란해요. 그냥 4개의 선지 전부 딱히 틀린 것이 없는 선지라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5번 선지는 어떤가요? 용골대가 괜히 욕심부리다가 장졸들이 죽었다고 탄식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박씨에게 죽음의 책임을 돌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오히려 자신 잘못이라고 하고 있죠. 심지어 폭력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감도 안 오네요. 용골대는 박씨에게 폭력을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레벨 차이가 너무 나니까요. 여러 면에서 봐도 5번 선지는 도저히 허용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11. (가)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식량'을 얻으려다가 인물이 죽게 되는 것은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로군.
- ② '갈가마귀떼'는 전쟁으로 인해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기하게 하는군.
- ③ '끓주린 이리떼'는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에 노출되어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렸음을 드러내는군.
- ④ 피에 젖은 '쌀자루'는 전쟁의 폭력이 무고한 인물에게 끼친 전쟁의 상흔을 나타내는군.
- ⑤ '벼랑을 기어오른다'는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1번 선지부터 봅시다. 식량을 얻는 것은 분명 전쟁터에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윤씨가 총에 맞아 죽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이는 결국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번 선지는 허용이 되고, 2번 선지 봅시다. 보통 때 같으면 길거리에 쌀과 수수가 흩어져 있어도 그냥 지나치거나 조심스레 접근했을텐데, 전쟁 때문에 그런 존엄성도 상실하고 '갈가마귀떼'처럼 달려드는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허용이 가능하겠어요.

3번 선지는 어떤가요? '끓주린 이리떼' 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이웃의 죽음을 외면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건 허용하기 힘드네요. 답은 3번. 4번 선지는 쉽게 허용이 가능하고, 5번 선지 역시 지영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윤씨를 업고 벼랑을 오른다는 점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다고 허용할 수 있겠네요.

12. (나), (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나)에서 용골대는 화공이 실패하자 화살로 피화당을 공격하였다.
- ② (나)에서 박씨는 오랑캐군이 화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기에 회군하는 오랑캐군을 공격했다.
- ③ (다)에서 지영은 윤씨 때문에 김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변으로 나갔다.
- ④ (다)에서 윤씨가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였다.
- ⑤ (다)에서 김씨 맥 아주머니는 피란 갔던 것을 걱정하는 윤씨를 안심시키려 하였다.

1번 선지부터 봅시다. (나)에서 용골대는 먼저 화살로 계화를 공격했다가 통하지 않자 피화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일종의 '상세한 내용일치'네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체크하고 넘어갔으리라 생각합니다. 2번 선지. 박씨가 오랑캐에게 '은혜지국을 침범하였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외람된 죄를 지었으나'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오랑캐군이 화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허용하기 힘들어요.

3번 선지. (다)의 중략 이후 부분에서 윤씨는 얘기를 어찌려고 그러냐며 지영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영은 기어코 강변으로 나가서 윤씨를 업고 돌아오죠. 그럼 답은 3번 이네요. 이런 문제가 왜 3점일까요.. 4번 선지는 공간 체크를 집요하게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윤씨가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가 아닌 '한강 모래밭'이었습니다. 다들 체크하셨죠? 5번 선지. 윤씨가 걱정한 것은 피란을 가지 '않은' 것 이었습니다. 완전 헛소리네요.

13. (다)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서술하며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를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뜬금없이 서술상의 특징을 묻고 있네요. 1번 선지. 회상은 나온적 없으니 틀렸네요. 2번 선지는요? 성격 변화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3번 선지 역시 사건의 원인 분석 같은건 나오지 않았으니 허용하기 힘들어요.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인물의 심리도 나온 적이 없으니 4번 선지도 틀렸고요.

5번 선지는 어떤가요? 지영이라는 인물이 강변으로 가고,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오르고, 독길까지 걷고.. 연속적인 행위 허용해주기에 충분하죠? 윤씨처럼 당장 총을 맞아도 할 말 없는 상황이기에 긴박한 상황 역시 허용이 가능하구요. 답은 5번이네요.

제시문 복합 지문도 결국 그냥 문학 문제들과 다르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문이에요. 항상 기억합시다. '허용가능성 평가하기!'

분석표 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나)

시행년월	2017.11 [21~26]
제목(저자)	박씨전 - 작자 미상
인물관계	계화, 박씨 <-> 용골대, 김자점
시간(변화)	-
공간(변화)	피화당
인물의 심리	용골대 : 뺨침, 분함, 박씨 : 뺨침
특이사항	배경 묘사, 서술자의 개입
1번 문제	허용가능성 평가하기 -> 상세한 내용일치
2번 문제	허용가능성 평가하기 -> 상세한 내용일치
3번 문제	허용가능성 평가하기
4번 문제	허용가능성 평가하기
5번 문제	허용가능성 평가하기 + 공간 체크
6번 문제	허용가능성 평가하기 (문학 개념어 공부하기)

(다)

시행년월	2017.11 [21~26]
제목(저자)	시장과 전장 - 박경리
인물관계	윤씨, 김씨 댁 아주머니, 지영
시간(변화)	-
공간(변화)	독길 -> 인도교 -> 한강 모래밭, 강변 -> 독길 -> 집
인물의 심리	윤씨 : 걱정
특이사항	-